

나의 가나안을 전도캠프로 정복하라

- 복음으로 여는 여호수아 -

여호수아 1:1-9, 사도행전 16:12-15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셔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누릴 뿐만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교회와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는 축복된 언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기쁨부음 받은 자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쁨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들에게 왜 기쁨을 부었을까? 목상에 봤다. 목상을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알게 하신다. 박진영이 쓴 책을 보니 그분도 굉장히 이성적이라 복음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한다.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하고 가수, 사업으로도 성공하고 원하는 아내와 결혼도 했는데 다 얻고 보니 공허하여 이혼하고 그 때부터 영원한 참 행복을 찾다가 구원의 복음을 알게 되었다. 신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론이나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다. 박진영이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 건강에 관심이 많아 책에 15가지 건강법을 나열했다. 그런데 그것을 읽다 보니 그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내용이었다. 아침마다 유기농 기쁨을 먹는다고 하더라. 우리 몸 안에 3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막이 기쁨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세포세포마다, 그리고 가정, 직장, 만물에 충만하셔서 자연도 소생하고 사람들이 영육 간에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예수이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주인이 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란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혼자서 민족과 세계를 살린 인물이었다.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유월절 언약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지만 그 광야로 오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다 끝낸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구한 분이기에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문제가 안 되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을 구하셨으니 오직 하나님, 복음만을 위해 살 결단을 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혼자 민족을 다 살렸다. 램넛트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모, 환경 탓을 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건 램넛트가 아니다.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그랬을 때 작은 현장도 살릴 수 있다. 그 게 바로 램넛트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길 자의 응답을 받은 램넛트였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취하기를 바란다. 갈등,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 구원의 감동이 없으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쓴다. 사탄에게 에너지를 빼앗길 시간이 없다.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기에도 비뻔다. 현장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성공자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가 참된 성공자이다. 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생명을 도울 수 있다. 그 남은자의 축복을 받아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서는 오늘 날 우리들에게는 현장전도캠프에 대한 성공의 키를 알려주고 있는 전도캠프의 지침서라고도 볼 수 있다. 정답꾼들이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찾아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루디아를 찾아내었다. 이것이 전도캠프성공의 키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전체의 내용과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복음과 전도캠프 성공의 키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여호수아서 전체 24 장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흐름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전도캠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담겨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24 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장면으로 끝나고 있다. 모세가 120 살에 죽었다. 여호수아도 110 세까지 살았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다락방, 지교회회를 하려면 에너지소비가 크다. 건강하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렵다. 말하고 설득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가 크다. 그리고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험악 올라서 잘못하면 건강 해질 수도 있다. 그 사람이 혼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하니 우리가 먼저 건강을 지켜야 한다.

1 장은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는 내용이다. Nobody, Nowhere, Notime, Noway, Noanswer 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 2 장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내용이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된다. 3 장부터 4 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은 홍해를 직접 목격할 수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다. 그래서 요단을 통해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확실하게 하는 상황이고 시간표였다. 5 장은 요단을 건너 후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게 된다.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후대들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이었다. 할례와 유월절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6 장에서는 전쟁을 하고 적도 많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전쟁을 해야 하는 남자들이 할례를 통해 움직이지 못하면 다 죽는 상황인데 할례를 했다. 즉, 전쟁은 우리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비밀과 그 믿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뿌려졌을 때 흑암도 꺾이고 어떤 강한 세력도 꺾인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흑암 세력으로 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여호수아서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정복을 해간다. 6 장에서 8 장은 가나안 중부지역, 9 장부터 10 장은 가나안 남부지역, 11 장은 북부지역을 정복하는 기록이다. 전도캠프, 공부, 사업도 다 마찬가지이다. 하나하나 한 부분을 정복해 가야 한다. 그러면 전체가 정복된다. 이러한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다. 그 첫 번째는 언약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정복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는 영적인 교훈이다. 그 안에는 7 족속이 있었다. 굴복하는 왕도 있었지만 5명의 왕은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방어하고 있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이 있고 7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 새로운 전쟁을 해야 했다. 대학에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도전이 많이 있다. 대학생활은 빨리 지나간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4학년 때 갈등하게 된다.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 갈등한다. 공부와 영적인 것, 대학 때 남는 것은 이 두 가지 밖에 없다. 대학생들이 다 놀고 술 마시는 줄 알지만 대학 도서관을 가보면 딱 차있다. 결국 미래는 누가 차지하겠는가.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착각하면 안 된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전쟁인 것이다. 직장에 취직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적인 싸움이 많이 있다.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육아문제, 시부모문제, 경제문제, 부부문제 등 본격적인 전쟁을 겪게 된다.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해야 할 헌신과 시험거리들이 많이 있다. 나의 밀바다야 다 드러난다. 때려 칠 수도 없다.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시험에 잡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임을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7 장, 8 장에는 아이 성 정복실패와 재정복에 대한 내용이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신앙과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되었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을 싸우지도 않고 정복했는데 작은 아이 성을 실패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는 중요한 집중캠프를 할 때 한 사람도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한 사람으로 전체가 피해가 오니 이런 사람 나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붙잡을 영적인 메시지이다.

13 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현상이 빈 곳이고 영적인 사각지대이다. 이와 같이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위에 하늘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흑암을 꺾지 못하면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주변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생 자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보아야 보인다. 말씀과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내 자존심 세우면 안 되고 말씀으로 나를 고쳐야 한다. 깨닫기만 하면 고쳐진다. 모르고 인정을 안 하면 치유가 안 된다. 말씀과 안 맞는 것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말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치유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달라진다.

14 장부터 19 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할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직접 조사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였다. 그 땅들은 각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정하게 된다. 이 11 지파들의 이름은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이고, 요단동편은 르우벤, 갓, 므낫세(반) 지파들이 땅을 배정받게 된다. 나머지 한 지파인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따로 성읍을 배정받게 된다.

마지막 후반부인 20 장에서 24 장 내용을 보면 20 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21 장은 레위지파의 성읍에 대하여, 그리고 22 장부터 24 장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2. 큰 두 번째에서는 여호수아서에 숨겨진 복음과 현장전도캠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첫 번째로 붙잡을 전도캠프성공의 키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 대장이 되었을 때 가나안캠프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이어로는 ‘예수’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통해서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대장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존 번연의 천로역정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내용인데 방이 많은 곳에 도착을 한다. 해석자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 한 방에 들어가니 바다에 민지가 있었다. 빗자루로 민지를 쓰니 민지가 팍 차게 되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리는 아가씨가 와서 물을 뿌려 청소를 하니 깨끗해졌다. 크리스찬이 상장을 물어봤다. 빗자루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래서 복음의 물을 뿌려 깨끗하게 청소해야 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모세의 역할이 있지만 율법이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완전한 정복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을 때 인생캠프, 현장캠프, 전도캠프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2) 더 나아가서 나의 현장에서 전도캠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 여호수아는 램넛 시절, 어린 시절부터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다. 여호수아는 헤브리 파워, 헤브리 달란트, 헤브리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모델적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지난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와 램넛들 중에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가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고 후대들을 양육해야 한다. 정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흑암이 가득하다.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할 언약을 후대들에게 심어야 한다.

(2)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 즉, 말씀포럼, 기도포럼, 전도포럼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었다. 먼저 팀형성을 바르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1:1로 강단메시지 포럼을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다락방을 하라. 강단, 교회,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 포럼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되어야 한다. 5인 1조 팀에서 4명은 이런 사람이어야 나머지 한 사람이 보고 배운다. 비율을 그렇게 맞추어야 한다. 그 전까지는 1:1 양육을 통해 정말 복음으로 답 내고 강단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전도캠프현장을 가면 누가 모였나를 보면 캠프결과가 보인다.

(3) 여호수아는 민족의 리더자가 되어 가나안정복캠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이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크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With, 임마누엘, 윈니스의 말씀이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반복해서 계속 들어라,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린다. 그래야 현장에서 흑암 쫓고 사람 살릴 수 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언제까지 갈 등하고 방황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언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 같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8번이나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갖는다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나는 부족하고 못 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말라고 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여호수아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아라. 우리들의 기준, 수준, 표준이 나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인생캠프, 전도캠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언약따라, 말씀따라 가는 것이 캠프인생이다.

3) 현장에서 라합과 같은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망자를 찾았을 때 70현장을 위한 전도캠프에 승리할 수 있다. 사업도 전도도 마찬가지이다.

4) 라합이 창문으로 붉은 천을 내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합이 창문을 통해 붉은 천을 내리고 온 가정을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켰던 것은 가족전도캠프에 성공한 라합의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모든 가족을 구원해 내는 예비된 제자들이 237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지난주에 페루에서 한국의 노동자로 왔다가 페루에 교회를 세운 제자들을 통해 페루에 40번째 페루 RTS 신학교가 세워졌다. 입학생이 75 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참사랑교회에서도 여기에 동참해 달라고 해서 지난 주에 협약식에 참석을 했다. 제자들은 느낌 자체가 다르다.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많다. 그런 현장을 가면 말씀 끝나고 옆 사람과 바로 뜨겁게 포럼을 나눈다. 이러한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현장에 루디아와 같이 예비된 자들이 너무 많다. 이들이 계속 전도를 한다. 237 나라에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3천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계속 헌금하고 선교해야 할 것 아닌가. 여러분은 나의 선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 헌금할 것도 없다. 소통하고 기도하라.

5)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도캠프를 해야 한다. 이때 현장의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를 위하여 사탄의 흑암세력과 강한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믿으면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앞에 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속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란다.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은 정복될 것이다.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지 않는다.

6) 성공적인 전도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땅에 대하여 현장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여호수아서 18 장 4절을 보겠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팀 형성을 3명씩 해서 현장을 돌아보고 전도의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전도에 24 해야 한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매일 친구에게 가서 간식 시우고 놀아주면서 주일에 교회 가자고 했다. 여러분이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이다. 나의 현장을 분석 안 해서 그렇다. 그러나 아무 것도 못하고 지속이 안 된다. 소중한 전도에 24 시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과 삶에도 집중이 된다.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을 잘해야 한다. 사람들은 주업이 아니라 부업에 신경을 쓴다. 대단하게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며 24 시 하라. 핵심적인 것을 관리 안 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 삶이 어려워진다.

7)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캠프의 성공의 키는 이기적이면 안 되고 서로 돕는 캠프, 함께하는 캠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윈니스 하나가 되었을 때 전도캠프도 성공할 수 있다. 요단 서쪽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함께 싸운 후, 요단 서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복음공동체이다. 여호수아서 22 장 1 절에서 3 절 말씀을 보겠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요단 동쪽에 있던 두 지파 반이 전쟁 할 때 같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영적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복종했다. 본인의 땅은 이미 다 정복했지만 목숨 걸고 가야하는 다른 지파, 형제의 전쟁에 참여했다. 순종하여 윈니스 되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형제를 도왔다. 공동체캠프이다. 일을 떠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일을 내 일처럼 받아서 잘 해서 전달하라.

8)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곳이 빈 곳이고 영적인 사각지대이다.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영적인 문제들은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의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다. 공무원 시험을 보면 한 과목이라도 과락을 하면 합격할 수 없다. 다른 것 다 잘해도 영적인 문제 하나 있으면 전도자로 합격할 수 없다. 그 영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하늘 보좌에서 빛을 보좌에서 빛을 보좌해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현장의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이다. 이때 정복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이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시스템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미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믿음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과 비전은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가나안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복캠프’를 위하여 24시간 기획하고 기도한다면 모든 꿈은 이루어 주신다. 분석만 하면 이미 끝난 것이다. 정복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산업, 전도대상자를 잘 분석하라.

4. Image, 이미지이다. 만일 문제가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한 주간은 전도캠프를 통하여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나의 가나안 70현장’을 몇 개라도 기록해 보시고 캠프기획을 해보시기 바란다. 거기에 집중해서 한 번 응답을 받아봐라. 그러면 계속 응답이 온다. 다락방 한 개를 하는 사람이 3, 4개 할 수 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3, 4명 할 수 있다. 그 집중을 하라. 집중할 것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려라. 정복되고 다음 단계들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노회에서 캠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말 전도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이 단 한 교회라도 300, 30, 3의 응답을 받게 해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집중해서 하나를 성공하면 된다. 윈니스 캠프를 해야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 교단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지 않으면 50년 지나면 교회 문 다 닫는다. 복음 지키는 것에 중심을 집중하라. 여러분 한 명이 다락방 포기하지 말고 한 다락방 성공하기를 바란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 안에서 나와 우리 가문과 산업과 교회에 주신 가나안 땅을 복음과 전도캠프로 정복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약하고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세 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현장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분야를 살리라는 절대 목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남은 자 램넛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